

비평; 우리건축의 생산적인 담론을 위하여

For a Productive Discourse on Our Architecture

승효상의 수백당을 통해 본 건축비평의 올바른 방향찾기

일시 : 99. 5. 29. (토) 10:30 ~ 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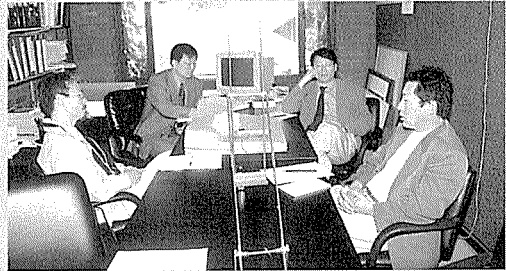
장소 : 이로재건축

참석자 : 이종건(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주대관(엑토건축 소장)

정인하(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사회)

최동규(서인건축 소장, 본지 편찬위원)



건축사지를 보는 회원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모임의 성격을 밝혀두고자 한다. 건축사지 99년 3월호 작 품리뷰란에 건축가 승효상의 주택 수백당이 선택, 게재되었고, 그에 대한 건축비평을 이종건교수가 했다. 또 그후에 「수백당, 그 또다 른 평가와 이종건의 비평에 관한 소견」이라는 제목으로 주대관소장이 글을 썼다. 이번일이 건축계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다. 그저 지 나가는 일로 치부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 수백당에 관해 계속된 지상비평은 수백당 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의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사지에서는 차제에 수백당에 관해 계속되는 논의를 좀 더 생산적인 담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당시 수백당에 관해 건축가와 대담을 했던 정인하교수, 비평을 했던 이종건교수, 비평에 대한 다른 소견을 피력했던 주대관소장이 한자리에 모여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같은 건축가의 입장에서 다른 건축가의 건축을 보고 평가할 때는 게재된 사진, 도면 등을 보고 일차 적인 판단을 하고 또 그 후에 그에 대한 건축비평을 읽고 이차판단을 하게 된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축비평 즉, 평가는 그 글 을 읽는 모든 건축관련자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건축비평자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 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수백당을 본 소감은 좋은 건축이라는 느낌과 또 한편으로는 이교수 말대로 조금 이상하다는 느 낌을 갖게 됐다. 이상하게 느낀 것은 보통의 집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즉 보통주택에서 보여지는 내용물들이 일시에 소거된 듯한 그런 느낌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이유로 수백당에 관한 대담 및 비평, 비평에 대한 다른 소견, 수백당 도 면 및 사진 자료 등을 다시 보고서야 건축주가 현직에서 은퇴한 점, 도시를 벗어나 교외에 거주하기로 한 점, 부인이 화가이므로 작 업실이 강조된 점 등을 고려해 보니 건축주의 필요와 건축가의 이상이 잘 부합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자리가 생산적인 논의, 수백당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가는 계기 또 건축비평이 차지하는 자리가 얼마만큼 건축계에 꼭 필요한 자양분이 되는지를 가 능해 볼 수 있는 뜻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대개 작품리뷰에 선택된 건축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기사화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평에 조금 다른 견해 가 있다고 해서 그 건축에 조금도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3월호 비평에서 참 이상한 집이다라는 말이 거듭 나오는 것 을 보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주변에 다른집이 전혀 없는 대지, 완전 건축가의 독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지를 보면 어느 건 축가라도 욕심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수백당 건축가도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생각해서 욕심을 낸 것 같다. 또 주대관 소장의 글도 읽어보니, 더더욱 이 집은 가볼만한 집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이 대담을 지켜볼 독자들을 위해 진지하고 솔직한 논의가 되 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 이번일이 흔히 건축잡지에서 보게되는 건물사진, 작가의 이야기, 또 그에 대한 건축비평으로 이어지는 일련 의 기존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집을 가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수백당에 관한 논의, 또 수백 당에 관한 논의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비평문화의 성숙을 위한 생산적인 담론을 기대해 본다.(최동규 / 본지 편찬위원)

정인하: 먼저 글을 읽지 못한 독자를 위해 「수백당」에 대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건: 건축물을 본다거나 또는 건축가를 해석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그것 혹은 그/그녀를 어떤 객체적인 대상으로 두고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다는 행위는 그 자체가 비평이라는 형식을 입을 때, 대상이 갖는 의미를 캐내기 위해 나름대로 독자적인 해석의 틀을 매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봤느냐보다는 어떻게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백당도 그렇고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그 대상을 보는 것은 비평 글쓰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글쓰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동안 한국에서 비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진 글쓰기를 '벗어나는' 태도를 말합니다. 20세기초까지의 문학이나 예술 쪽의 영역에서 전기적 비평이라고 해서 작가의 성격, 생활방식, 가치관 등을 그 대상에 상 관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정신분석적 틀이라든지 또는 형식주의적 비평이라든지 등의 방식으로 어떤 방식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어 연결짓는 작업을 벗어나, 비평이라는 작업 자체를 독자적인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행위로서의 글쓰기는 또한 대상으로부터 파악할 것들을 마치 음식의 재료로 삼아 새로운 음식을 만들듯, 새로운 글쓰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수백당을 파악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파우스트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승소장의 설계변도 듣지 못했고, 도면도 본 적 없이 맨몸으로 현장에 갔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 이전에 승소장의 건물과 글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작품의 비평에 때로는 작가의 변을 들을 경우 오히려 역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는 그 때 이미 작가의 입장을 벗어나 비평가의 입장에 섭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그동안 승소장은 많은 작품들에서 우리 몸이 진행되는 그 깊이 방향으로 체험을 주는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간혹 예외는 있지만. 특히 이 집은 매스가 병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선을 강제적으로 직선화시켜 꺾매는 방식이라든지, 집을 다스리는 태도에서 승소장 특유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형식미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실체성과 비실체성간의 관계의 문제에서, 예컨대 자연을 만나게 하는 방법에서 실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그 방법에는 명백히 서구적인 논법이 들어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건축가가 서구 모더니즘의 궤적에 따라 추구한 건축가 자의식 들어내기 역사를 지금 이 땅에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건축가의 자의식이 어떻게 건물 또는 프로그램과 만나고 있는가 하는 세 가지 관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인하: 소위 근대이후에 건축이나 예술에 나타났던 미적인 자의식 아니면,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지시적(self-referential)이고 리토릭(rhetoric)한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종건 교수께서 쓰신 글을 보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계속 논의가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주대관 소장께서 먼저 수백당을 보신 느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종건 교수께서 쓰신 글을 보신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대관: 우선 수백당을 본 느낌이 이교수님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설계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나게 조절된 건축이다라는 느낌을 가졌고, 이교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항목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글을 쓰고자 했던 부분이나 보았던 것을 알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같은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나 후학들 또는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더 설명의 필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교수께서 쓰신 글이 앞부분에서 상당히 절제된 다음에 뒷부분에 관한 내용에 치중했기 때문에 저는 앞부분을 보완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비평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설계를 하는 사람이 글을 쓰든 이론을 하는 사람이 글을 쓰든, 그 연결통로가 상당히 단절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론을 전공한 사람은 건축의 읽기, 읽기라는 측면에서 소홀히 한다거나 간과하는 측면이 많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한단계 나아간 건축가의 생각을 끌어내는데 약한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협조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반복되거나 한다면, 한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문화나 풍토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백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비평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일단 분리했고, 그 자체에 대해서 글을 쓴 저의 시각은 밝혔다고 봅니다.

정인하: 주대관 소장이 보시기에 이종건교수의 글이 담혀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가나 모든 작품이 배제된 상태에서 비평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그 자체로 담혀진 텍스트라고 보십니까?

주대관: 질문하신 의도가 이교수의 글이 하나의 자율적인 또하나의 생산된 텍스트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지, 아니면 작품과 완벽하게 단절된 텍스트로 보아 너무 비설명적인 것이 아닌지의 문제인지?

정인하: 후자쪽입니다.

주대관: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평에는 분명히 태도들이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은 비평가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텍스트) 자체를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교수의 비평 자체에 관심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저의 설계 연장선상에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수백당

교집합을 갖느냐 안갖느냐의 문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정인하: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분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정도 간략하게나마 밝히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점 하나하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논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건축가가 자연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종건 교수의 글에서는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건: 흔히 자연을 경관의 대상으로 삼아 차경이라는 견지에서 전통건축에서 시각화시키니까 지금의 건축가들도 그런 논법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백당의 경우 전면에 원경을 이루는 산으로 있고, 배치 자체가 도시가 아니라 시골 소위 말해서 자연 안에 있는 상황인데, 주대관 소장도 지적했다시피 바다 앞에 사는 사람은 바다를 향해 온통 열어놓고 살지 않습니다. 바다가 이미 일상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시각에서, 너무나 멋진 그림, 좋아하는 음악이나 사람은 반드시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함으로써만 내밀함 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그 깊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대의 역사는 자연을 대상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백당에서의 자연을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연에 대한 감상이나 파악의 경로가 대개 우리의 경우 다른 사물을 경유하는, 다시 말해서 둘러서 간접적인 반면, 수백당은 직접 눈앞에 시각화시키고, 그것도 어디에서나 동일한 자연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스를 길게 늘어뜨려 배치하고 있는데, 실과 실 사이를 많이 벌려 접근 경로를 길게 만들고 거기에서 느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대개의 건축가들이 꿈꾸어 오던 것들입니다. 수백당의 경우 건축가는 그러한 생각을 극으로 밀어붙여 안팎을 대등하게 취급하는 데까지 갔는데,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전이공간 본래의 의미나 긴장이 희미해져 다분히 교과서적(개념적)인 상태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가 주대관 소장은 제가 건물을 이론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말했는데, 저도 설계를 하고, 따라서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현재라고 하는 상황자체가 역사를 재해석해서 불러들임과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평과 창작은 필히 교섭해야 할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자연을 대상화, 시각화시켰다는 것, 그래서 자연의 속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자연을 다른 중간적인 존재를 경유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들이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보편화된 상황으로 이상화시켰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입장에서 수백당을 건물자체의 아름다움을 떠나 부정적으로 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인하: 승효상 소장의 말씀은 인간이 자연을 참견하는 범위를 최소화시켜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연의 변화 자체를 내버려둬야 된다는 것이 설계 개념이었고, 자연에 대한 태도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말은 그렇지만, 실제 사이트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커서 어차피 땅 전체를 디자인으로 다스리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매스로 이 평수로 만약 자연을 최소화해서 점유하고자 했다면 응당 매스를 모아야 하고, 자연을 온통 열어두기보다는 적절히 닫고, 온통 집을 3면 또는 4면의 벽들을 외기에 면하게 만들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미세한 조절을 하면서도 충분히 자연을 깊이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백당의 경우는 그러한 문제를 일차적으로 취급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대관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관: 그런 부분은 글에 이미 썼기 때문에 부언할 내용은 없습니다.

정인하: 승효상 소장이 그동안 작품활동을 하면서 '빈자의 미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종건 교수께서는 '빈자'의 개념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위장된 뉘앙스를 가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논의의 초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승소장의 '빈자의 미학' 자체가 위선이다, 위장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건축에 대한 다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는 그 생각이 분명히 과장되고 또 자의식화되어 있다고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사실

롤랑 바르트는 <현대의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기호와 실체가 분리된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언어가 자기지시적일수록 건강한 사회이고 그것이 아마도 현대사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 인 하

그 문제가 말이라는 것, 빈자라는 것, 가난하다는 것과 실체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건축가가 빈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나 건축형식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집은 평당 600만원을 상회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었고, 굉장히 절제되고 단순화 된 것 같은데 무척 화려합니다. 계단이나 창이나 마감처리가 사람이 정말 빈을 느끼는 게 아니라 빈이 화려하게 변신해 있는데, 빈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님을 역력히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빈자의 논의가 이 집에서는 가식이라고 본 겁니다.

정인하: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현대의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기호와 실체가 분리된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언어가 자기지시적일수록 건강한 사회이고 그것이 아마도 현대사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중 견고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빈자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 가난하다는 것과 실체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건축가가 빈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나 건축형식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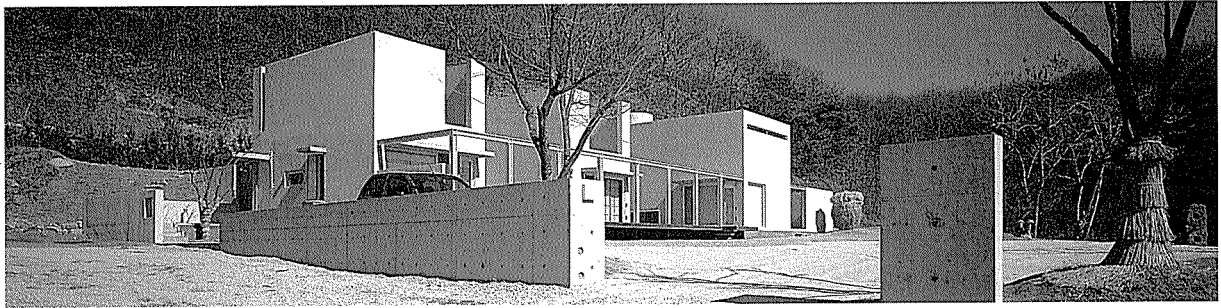
이중건: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일본에서 이미 빈의 미학이라든지 철학이 근 70년 전에 체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승소장이 차용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빈의 미학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조금 다르지만,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쓸함, 외로움, 적막함, 화려하지 않음, 담담함, 다시 말해 자의성의 거부 등을 통한 미학을 주창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경로라고 봅니다. 다른 경로로는, 빈이라고 하는 태도를 철학적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다양한 방식의 건축적 방법이나 형식이나 내용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빈을 가난하게 보임으로만 치닫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막다른 골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은 승소장이 빌딩을 설계할 때는 빈자의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난처할 겁니다. 본인도 아마 그런 딜레마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는 빈자의 미학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실천경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만 보이게 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앞문에서 쫓겨난 것이 뒷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예와 마찬가지로, 쫓아낸 화려함이 다시 들어와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대관: 저는 개인적으로 승소장의 빈자의 미학 자체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언급한다면 빈자의 미학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 건축계에서 상당히 유사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비움이나 없음 이런 것들이 동양적인 가치 부여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반해서 동양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무위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승소장의 빈자의 미학에서는 무라는 개념을 오히려 서구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념화에 대한 작위같은 것이 있지 않나 봅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에 반대된 개념의 접근에 의한 실천에 의해서 더 동양적인 가치들을 앞에 내세운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내세운 건축가의 이론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자체보다는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건축가 개인의 책임이고 몫이라고 봅니다.

정인하: 작위성과 무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존재와 비존재, 공간과 건축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실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관: 적어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흔적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적인 측면에서 기능의 문제를 떠나서 심리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의 옷과 같아서 현대적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옷을 그냥 편안함으로 입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목덜미에 라벨을 붙여야 옷을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실태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라벨을 붙인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간을 자기가 점유하고 공간속에 거주하기가 성취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주자가 선택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하: 주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건축가는 "집이란 건축가가 프레임만 설정해 주고 나머지는 사는 사람들이 그들 사는 방식에 따라서 각자 변형을 하든지 그사람 체취가 묻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중



수백당

건 교수께서는 이 집은 그런 집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금방 말씀하신 승소장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승소장이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건축주가 그 집에 그림 걸 데를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사실 자질구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것을 퇴각시켰습니다. 어쨌든 깔끔하게만 24시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삶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대관 소장이 얘기했듯, 사는 사람이 어떤 옷을 선택하는 것은 사는 사람의 몫이고, 거주인의 몫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는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집에 관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는 배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승소장이 보여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집의 모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집의 가치나 집이 가지고 있는 내밀함의 정서나 혹은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얘기하는 구석공간이라든지 등은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잡지가 주변은 가린 채 이 집만 보여주는데, 주변을 보면 이 집은 홀로 고고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곳에는 창을 통해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훑쳐보고, 자연이라든지 그리고 공간의 개념을 위해 응달 공간을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감동을 자아내기 위한 수법들이 은신처로서의 집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집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안전감, 은신에 대한 개념이 거의 무시되고 있어요. 이런 등등의 이유로 주거의 본질에 상당히 비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작품성취를 위해서...

정인하: 서양건축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주거작품들, 가령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부아(Villa Savoye), 피에르 샤로(Pierre Chareau)의 메종 드 베르(Maison de Verre), 필립 존슨의 뉴 카난주택 등을 보면 비슷한 류의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고있는 사람들의 그것보다는 주거개념이라는 측면에서의 탐구가 훨씬 더 강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그런 모든 것들이 무시되더라도 하나의 인간의 정신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정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뚫고 나가는 차원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축이라는 시각자체를 한국이라든지 동양이라든지 지역의 입장이 아니라 코스모폴리탄적으로 볼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비켜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부아가 우리의 상황에서 모형이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국수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세계적인 건축을 만든다든지 세계적인 건축사상을 내보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건축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축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모든 인류의 지성사가 정의를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연다는 점에서 동일한 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인하: 주대관 소장께서는 주거작품으로써 이 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관: 이교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거주하기가 소홀히 되어있든 안되어 있던 그것이 건축가가 이 집에서 거주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빌라 사부아주택을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은 근대적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근대인들이 살아갈 집으로써 르꼬르뷔제가 제안했다면 승효상은 수백당을 통해서 현대 99년을 살아가는 계급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집으로써 이해를 하고 제안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하기가 빠졌다 안빠졌다 문제가 아니라 빠진 상태 자체가 이미 이 시대의 건축이나 주거의 거주하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측면에서 본다면 그것 자체도 이미 하나의 작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하기의 시각을 승효상소장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나 이교수께서 생각하시는 거주하기의 생각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가의 문제는 어떻게라는 문제, 실천에 대한 문제, 만들어 내기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장르에서는 대개 문제에 대한 비판에 그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퍼포먼스나 인스톨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여줘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이나 어떻게 얼마만큼 실천해 내고 있는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작품자체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시대의 사람

비평은 글건축입니다. 글로 건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비평하는 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 너무 해설쪽으로 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래야만 비평이 우리나라에 성립할



이 종 권

수 있고, 또 새로운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가 되어 그것들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건축가와 부딪히면서 새로운 건축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이 원하는 건축속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집은 어쨌든 이 시대의 상당히 대표적인 건축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인하: 주대관 소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종건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주대관 소장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집을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대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교수께서 말씀하신 거주하기의 문제라든가 거주하기가 지향해야할 바를 실천하느냐 안하느냐는 승소장이 그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교수께서는 르 꼬르뷔제의 주택을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건축적인 가치나 시대적인 가치가 있다면 거주하기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것,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주하기의 문제가 주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종건: 바로 그것이 무엇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건축주가 건축가에게 전폭적으로 맡겨서 건축가의 생각을 담아낸 집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거하고 싶은 것들이 이 집에서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주대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전원주택같은 것이구요. 거기에서 옷을 벗어버린 편안함보다는 시각적인 즐거움, 밖에서 건물을 보는 시각과 안에서 자연을 하나의 그림 즉, 대상으로 자연을 끌어들이려는 두가지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축축하게 살갓에 묻어나는 구질구질한 일상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이 시대의 계급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사람들의 거주하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종건: 그렇다면 그것이 배어있지 않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거의 다 배어있고 다른 동시대 건축가들도 다 하거든요. 옆에 있는 집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가보면 보통 집쟁이가 지었다는 집들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해 하고 사랑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이 시대의 대표적 주택이라고 했을 때 그 근거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주대관: 일산의 다른 대지에서 80평, 100평으로 찢라진 땅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의 차단이 됩니다. 대개가 창은 크게 내놨지만 커튼치고 밖을 볼 수가 없고, 그것을 여기서는 마음껏 구사를 했다는 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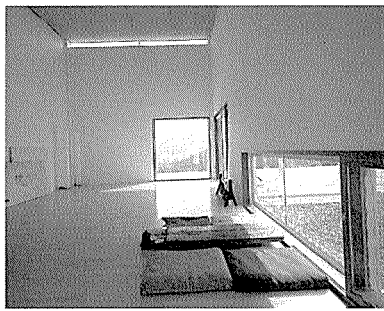
이종건: 일산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집들도 다 창을 가지고 마음껏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집을 좋은 주거의 예라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죠.

정인하: 만약에 다른사람도 그렇게 하고있는데 승소장이 그것을 좀 더 능숙하게 극대화시켜서 드라마틱하게 구사했다고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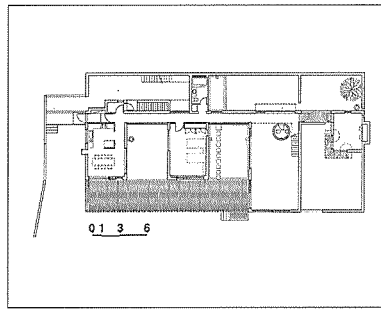
이종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각차이를 보이는 점이 이 집이 이 시대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대관: 아까 말씀중에 르 꼬르뷔제의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불편하다, 편안하다,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도 대표적으로 그 시대의 삶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평창이라든가, 오원칙과 결부되어서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작품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면 거주하기의 문제는 건축가의 개인적인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토론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이교수의 말씀은 거주성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건: 그 얘기는 아니고, 거주성은 아까 말했듯이 사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건축가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건축가가 이 시대에서 빈자의 미학을 들고 오든 또는 건축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와 맞서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지, 사는 사람의 거주방식이 들어있다 들어



수백당



수백당 1층 평면도



수백당

있지 않다는 얘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대관: 저는 입장이 다른데, 앞에 부분은 잘라내고 본다는 것입니다. 승소장이 말씀하시는 빈자의 미학을 잘라내고 이 건물, 하나의 집을 놓고 봤을 때 이 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모두 원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산에 있는 집들에서 원하는 행위와 이 집에서 원하는 행위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종건: 그래서 이 시대 모든 사람이 이 집을 원한다고 하시는 거죠. 나는 그것을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인하: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대관소장께서는 설계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시대의 상류층 부르조아들의 삶을 담을 수 있는 전형적인 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종건 교수께서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주대관: 제가 보기에는 글쓰기의 서로의 태도의 차이, 이것이 왜 수백당인가라고 하는 문제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빼버리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 길이 다르면 서로 토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토론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부분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화해서 토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이 토론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또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작품적인 가치가 있는냐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교수께서는 이교수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또는 승소장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이교수께서 가지고 있는 주거론이라든가 거주하기 문제라든가 그런부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 실천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인하: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것은 주대관소장이 말씀하신 시대를 담고 있는데 무엇을 담고있느냐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교수께서도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대관: 바로 이교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문제들 그것 자체가 이 시대의 주거의 상당부분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이종건: 건축가의 한계가 아닐까요? 이 시대의 한계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건축주가 건축가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건축가로서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건축가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구요.

주대관: 그런데 많은 주택작품들이 이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봅니다.

이종건: 그것은 경향인데, 건축가들의 경향이지 이 시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특유한 방식으로 덮어씌운다고 봐야지, 우리 시대를 드러내는, 건축가 일부의 시대는 드러내지만 우리 시대라고 하는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하: 건축가가 어떤 시대를 드러내는 것 보다는 어떤 시대를 앞서서 주거에 대한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는 측면은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종건: 늘 가능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가가 일종의 계몽주의적인 측면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계몽성 자체가 주거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인하: 이교수께서는 비평은 좋고 니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물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대관소장이 이교수께서는 구체적인 논증이 없이 대상을 비판하는 너무 주관적인 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그래서 주대관 소장의 글을 읽어봤어요. 사실은 그전에 민현식 선생님에 대해 비평한 것을 보았는데, 매우 분석적으로 꼼꼼히 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성정으로는 와 닿지 않아요. 이미 뭔가를 알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꼭 줄줄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여줘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이나 어떻게 얼마만큼 실천해 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작품자체도 현재를 살



주 대 관

아가고 있는 지금 이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축속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집은 어쨌든 이 시대의 상당히 대표적인 건축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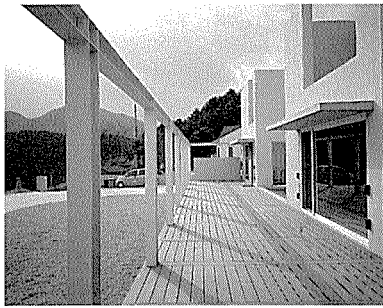
펼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대관 소장이 주장하는 인과식, 분석적으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논증이 없다고 비판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주대관 소장의 경우, 그 글이 어떤 분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결론에 이르러 나온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할 얘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어 독자의 설득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대관 소장이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비평은 다양한 형식을 가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적 비평이라든지 정신분석적 비평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원인을 제공하고 이유를 제공하여 이래서 이렇게 않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신비평 이전에 나온 것들로서 문학에서는 퇴각이 된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이것이 원인이고 결과가 이렇게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비평이라고 하는 글쓰기는 문학의 한 장르로 보지, 그것을 원인과 분석을 하는 논문식 글쓰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대관 소장이 비판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주대관 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 글을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는 점, 예컨대 첫 번째 이상하더라는 집은 가치판단이 중지된 상황인데 가치판단을 집어넣어 본 것으로 해석했고, 두 가지 가능성 중 부정적인 문구만 따와서 얘기를 한 점, 그 다음 매스의 별림을 원숭이 엉덩이식 논법으로 욕망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건물을 보고 전체를 이야기하기 위한 이야기의 모두(冒頭)를 형식주의적인 오류로 본 것 등입니다. 그 뒤의 글에서 나는 "결국은 자의식이 이 시대 어떻게 드러나며 나타나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글쓰기나 비평이 주관적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데, 결국 비평가의 근거는 제가 볼 때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비평가의 살아왔던 경력과 공부했던 안목 등 총체적인 것들이 근거가 되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비평가로서 사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글쓰기와 분석적인 글쓰기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신비평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평이라고 하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해석 또는 이데올로기적 비평도 존재하고 현상학적 비평도 존재하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그분에 따르면 비평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평은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고, 저도 아직 비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문학적으로, 어떤 때는 분석적으로, 어떤 때는 거침없는 형식으로, 어떤 때는 부드럽게 등으로 다양한 형식을 취해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평을 분석적인 글쓰기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거북합니다.

정인하: 제가 생각하기에는 몸이라는 것이 메를로 폴티(Merleau-Ponty)가 이야기하는 체험의 주체로써 몸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몸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과연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현전의 것들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전에 이미 다른사람의 기존의 것에 구조화되고 그것이 의미가 배어있는 것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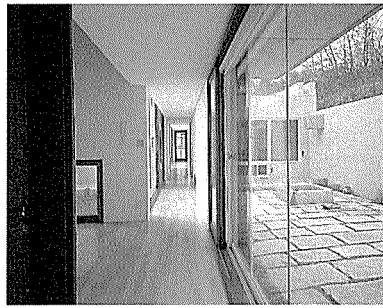
이종건: 그것까지 포함해서 몸이죠. 몸은 물리적인 몸만이 아니고 특히 현상학적으로 넘어가서 몸을 얘기할 때는 물리적인 신체로써 몸은 아니거든요. 정신과 육체가 소통하는 측면에서 현상적 몸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객관성의 근거는 무엇이나, 과학의 객관성은 존재하는가의 논의로 확대되겠죠. 거기서 리얼리즘도 나오고 철학적으로 분기가 나오는데, 몸이라고 할 때는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소통성이 전제되고, 그것이 비평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랬지, 그러니까 저렇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가 있을 때 징검다리를 너무 촘촘히 놓았다, 너무 벌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정인하: 제가 질문한 요점이 그것이 아니고 가령 수백당을 살펴볼 때 이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몸이라는 것이 건물내부에서 체험된 또는 지각된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교수는 그 당시의 몸 자체에 의미를 가지지만 건물 자체는 만약에 승효상이라는 건축가가 20년이상 동안 갈고 닦아온 어떤 이론적인 여러 가지 배경 등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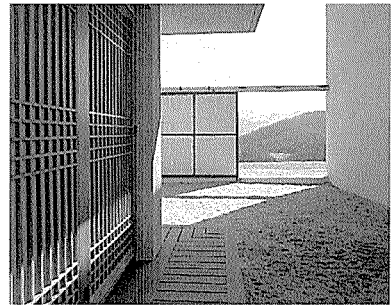
이종건: 잘못 묻고 계시는데, 비평의 근거가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이라는 단어가 경험을 체험하는 또는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로서의 몸이 아니라, 제가 제 몸이라고 할 때는 경험에서 그 순간에 포착한 현전의 상황이 아니라, 제 몸에 누적된 역사와



수백당



수백당



수백당

제 몸을 관통하고 있는 경험과 제 몸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이런 것들이 이미 승소장이라든가 한국사람이라든지 서양사람이라든지 관통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분히 한 사건의 경험을 짚라 그 20년, 40년의 누적을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는 질문인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서 몸으로 경험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흐르는 관류와 조직과 사상과 체계가 겹쳐지는 것이지, 그 안에 체험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인하: 물론 그것까지 포함해서 머리속에 가지고 계신 모든 사상 등이 스스로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건 교수의 생각은, 그것을 만들어 내는 무엇인가 커다란 또다른 외재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종건: 당연히 그렇죠.

주대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관적으로 몸에 육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이미 앞에 구구절절히 구질구질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인간인 이상 직관적인 판단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글쓰기 한 것에 대해 분석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질구질한 것들이 모여서 거주하고 집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구질구질한 사물이 모여서 세계를 이룬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구질구질한 디테일한 것들이 즉 구체적인 사실들이 모여서 건축을 이루어내거든요. 따라서 구체적인 공간, 구체적인 디테일 등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분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적이라고 한다면 예를들어 사과의 맛은 산도와 그 지방의 풍토와 토양성분 등을 얘기할 때 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하지 사과를 문학적인 단어를 통해서 사과의 오묘한 맛을 설명했다든지 그 사과맛이 주는 감동을 세세하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을 분석적이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결과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부분도 있을 수 있을 때 다른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추론을 통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는데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애 등등의 부분을 분석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같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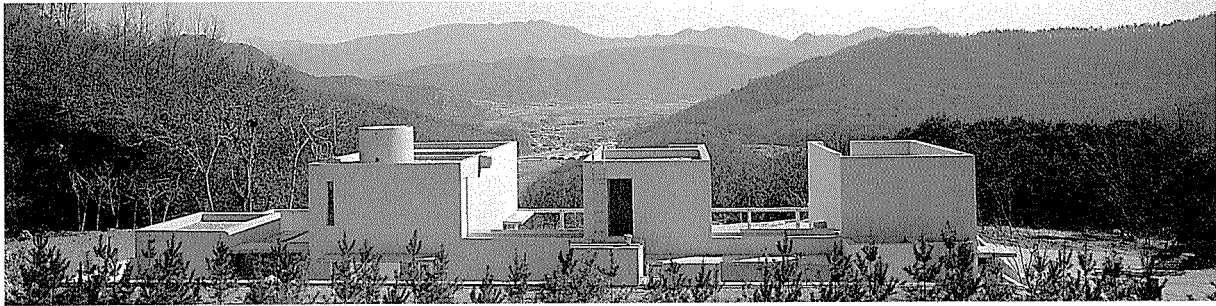
이종건: 그게 아닙니다. 논리는 다 있는데, 주대관 소장이 저한테 비판한 것 중의 하나가 인과관계의 증명이나 추론이 없다고 했는데,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했듯이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미 비판이 아니고 해설이고 또 그 앞에 많은 비평사에서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종의 경향이 아니라 비평사에서 실증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팽배하다는 결국 실증주의 측면, 사회과학적인 측면은 비평에서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드러내주는 세계는 결국은 심리학적 오류로 정의해서 넘어섰다는 것이죠.

정인하: 신비평이라고해서 다른 비평보다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까?

이종건: 신비평의 우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평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해설이나 심리치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택했다는 거죠. 그 이후를 따지면, 비평사가 성립한지 50년밖에 안됩니다. 그때 이미 많은 것들을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대관 소장이 얘기한, 제 글에 인과관계의 분석이 없다는 것은, 다분히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건축가의 사고과정을 추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건축가의 사고과정에 뛰어 들어 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비평이라고 하는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통해서 창조한다면 비평가는 글을 통해서 창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각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정인하: 끝으로 비평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건: 주대관 소장이 저한테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서 비판했는지 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평에 대한 시각을 너무나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 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욕망과 연관시킨다고 해서 형식주의적 오류라 하셨는데, 그것은 겉에서 보고 한 것이



수백당

아니라 그것들을 논의할 모두(冒頭)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들을 뺐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것을 빼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만 해서 욕망으로 봤다는 등등이 편파적이라고 봅니다.

정인하: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종건 교수의 관점이 유교적이고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타리(Felix Guattari)와 들뢰즈(Gilles Deleuze)의 경우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생산해 내는 굉장히 긍정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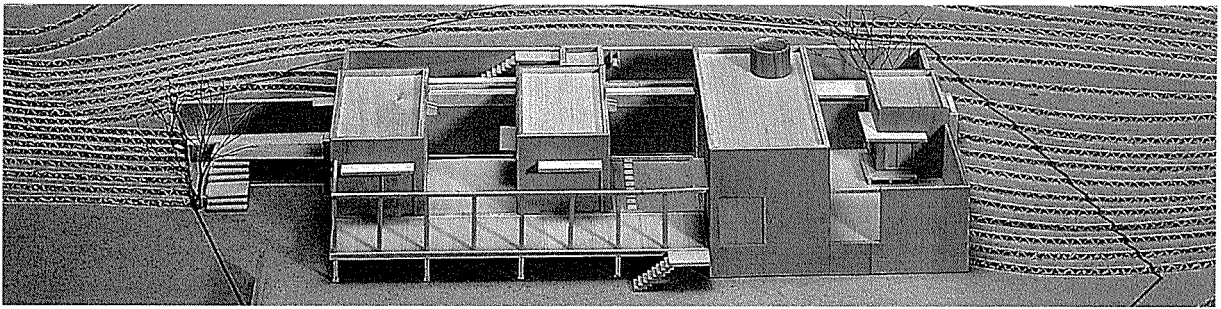
이종건: 욕망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근대의 모더니티에 관한 얘기들의 테두리 안에서는 다만, 다른 방식으로 욕망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승소장같이 영향력 있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것들을 염려하는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보아 지금 우리는 중대한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이 영망진창인데, 왜 그런지는 근대성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욕망에는 삶의 욕망도 있고 죽음의 욕망도 있는데, 근대성의 역사는 분명 죽음의 욕망 쪽으로 방향을 잡은 징후가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 근대인들은 모두 '눈'에 집착해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1700년도부터 사람들은 그 이외의 감각들을 거세해 나갑니다. 듣기, 보기, 만지기 심지어는 인간에게서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면서 동물을 제거해 나가요. 머리가 긴 것도 금지해요. 동물처럼 생겼으니까. 식탁의 에티켓도 그때 생겼습니다. 포크도 그때 생겼어요. 잔디도 1900년도에 생겼어요. 잔디를 만들어서 인간이 인간화시켜서 자연을 정복, 대립하고, 그런데 그 논의를 발전시킬 경우 승소장의 수졸당이라든지 최근의 한국 건축가들이 마당에 나무바닥을 까는 것도 비슷한 시각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삶 자체나 자연의 야생성을 그대로 두지 않고, 결국은 인간이 지배를 계속 확장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썼지 욕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업적은 모두 욕망이 추동한 것입니다.

정인하: 그런데 계속 느껴지는 것이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이종건 교수께서 쓰신 글에 나타나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욕망이라는 것을 한쪽은 근대적인 태도에서의 부정적인 욕망이고, 다른 한쪽은 의미를 생성하는 긍정적인 욕망, 그 두가지가 계속 모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본인도 그것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대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부연하면, 추론이라는 말을 쓴 것은 예를 들면 그것이 상당부분 글쓰기하는 사람의 육화된 어떤 경험도 있지만 독자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맞는 상황에서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가 이외에는 최근에 사회학에서 이진경씨가 공간이라는 것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철학하는 사람들도 공간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공간, 건축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단절되어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이 우리 건축의 또다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부분에 대한 읽기에서 이교수의 글이 조금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글을 썼고 추론이라는 것이 분석적이 아니라고 해서 글을 썼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칸의 건축을 보고는 설명이 안되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분명히 루이스칸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논리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자나 후학이나 건축가에게 조금 더 친절한 태도를 보이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종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건축과 사회가 단절되고, 독자와의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해설을 요구하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적이면 많은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저는 여전히 그것은 건축의 초보 서적이거나 해설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비평이라는 입장에서는 비평의 한 장르가 완성됐으면 혹은 역으로 문학적으로 성립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장르로 트고 나갈 수 있는 근거나 자립의 근거마련을 위해 자율적, 창조적, 글쓰기가 됐으면 어떻겠느냐고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평은 분명 해설이 아니니까요.

주대관: 저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에 대한 사회학의 문제로 봅니다. 즉 실천의 문제로 봅니다. 예를들면 요즘은 철학과 사회학의 경계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지만 사회학으로 넘어오는 순간 구체적인 실행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수백당 초기모형

랬을 때 건축이라는 것은 비판에 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안하고 던져지는 행위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은 훨씬 더 구체적인 문제들이 달라붙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문학쪽에서의 신비평의 문제들이 건축의 글쓰기에서는 상당부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문학적인 글쓰기라는 것은 글 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적으로 독자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런 것보다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모형만으로는 이미지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글쓰기에서도 밝혔듯이 여기 이 때가 상당히 굵은데 실제 지어진 것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느껴질까를 우리가 어느정도는 설명하고 추론하는 것이 건축의 글쓰기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인하: 오늘의 이야기의 중요한 논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건축의 비평이 문학적 비평과는 다른 차원의 글쓰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꾸 비평을 작품 해설 쪽으로 몰고가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비평은 글건축입니다. 글로 건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글로 작업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비평을 이차적 글쓰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성적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행위로 보듯이, 건축비평도 새로운 글건축이기 때문에, 예컨대 건축을 중요시 여기는 무엇을 담고 있는 한 건축에서 어떤 부분이 40층이 돼야된다, 100층이 돼야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요, 그 형식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혹 다른 비평하시는 분들도 글쓰기를 할 때 너무 해설 쪽으로 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야만 비평이 우리나라에 성립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가 되어 그것들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건축가와 부딪히면서 새로운 건축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대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차적인 문제가 안되는 일은 저도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차적인 문제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개가 만나는 일, 비밀통로가 확실하게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따로따로가 되지 공존하는 또다른 세계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종건: 간의 작품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감동스럽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제 글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 능력의 부족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해설적이면서 설명적인 비평은 할 생각이 없고 또 그러한 글은 비평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히려 전혀 엉뚱한 글이지만 그것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준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야나기가 가와이 간지로에게 “그것은 기교지 미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비판)이 당시 일본의 일종의 명인이던 가와이에게 하나의 새로운 씨를 심어 주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서 디컨스트럭션처럼 뒤집고 나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만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시 부탁하건대, 해설과 비평은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대관: 왜 건축글쓰기에서는 약간의 분석적인 태도가 필요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이교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교수의 말씀도 상당부분 합정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에 잡지에 작품을 실으라고 했을 때 사진 작가의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어떤 아주 기가막힌 순간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었을 때는 창조된 사진작품입니다. 건축적인 텍스트를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사진의 텍스트로 옮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정이 잡혀서 그 자리에 가서 단순히 촬영을 했을 때는 내가 내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텍스트에 재생산된 텍스트로서 사진을 쓸 때 크레딧을 인정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평의 태도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생산적인 자세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썼을 때하고 그냥 작품 소개에 딸려서 쓴 것하고는 구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하: 장시간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의 이 자리가 건축비평이 좀 더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